

투데이 칼럼

젊은 남녀 결혼시키려면 지금의 결혼식 풍토 반드시 변해야

지난 토요일 한옥마을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다. 그간 결혼식은 거의 다 일반 시내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해왔기에 정통 혼례식이 색다르게 보였다.

정통 혼례식에서 팬 처음 기러기를 들고 입장하였다. 기러기는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짝개를 지켜 살아가기에 우리 조상들은 기러기를 본받아 살라고 기러기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입장시킨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사소한 것 하나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결혼식에 대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요즘 결혼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 모두 허례허식에 가깝게 치른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할 경우 결혼식장은 호텔이거나 아니면 가장 시설도 깨끗하고 가격도 비싼 곳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려운 세대를 살아온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이 앞을 선다.

요즘 젊은이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할 준비가 안 되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나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7포 세대(연애 결혼, 출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꿈)라는 신조어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톨이가 되어 살아가곤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를 보는 부모나 양식이 있는 어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허례허식의 폐단을 심각하게 생각한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결혼식에 청첩장도 내지 못하도록 하여 필요가 결혼할 때는 청첩장조차 내지 못하는 결혼식을 치렀다.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알려야 해서 편지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려드린 기억이 있다.

이러한 허례허식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이르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오른 이후로는 이러한 허례허식이 슬금슬금 퇴살이 나서 너무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고

있어 걱정이 앞을 선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허례허식의 결혼문화를 청산한 지 이미 오래다.

프랑스에서는 시청 강당 등 공공기관에서 비용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부자들도 자연스럽게 사치스러운 결혼식보다는 공공기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임에도 이러한 젊은 청춘남녀들의 결혼식 문화를 간소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여 결혼식 부담을 적게 만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결혼식 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로 이러한 선진국의 잘하는 것들은 벤치마킹하여 공공기관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강당 등을 결혼식을 치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시설도

갖추고 해서 결혼식이 허례허식의 장이 아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간소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면 청춘남녀들이 부담 없이 결혼하게 되고 자녀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세대들의 결혼을 하지 않는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영속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입여성(15-49세)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2023년 기준 0.721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OECD 평균 1.59명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니 걱정이 앞선다.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여 명에 불과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출산 지원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자 교육대학교에 지원하는 교생이 거의 없는 등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어른들은 자녀 결혼과 출산을 위하여 더 머리를 맞대고 정부에게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좀 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이영순 수채화 개인전

부안 출신 이영순 수채화 개인전 '행복을 그리다'가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영순 작가의 수채화 소재는 다양하다.

그림 제목은 '풍경소리'를 비롯 '카페 향기', '뽕단지 꽃과 가을 들녘', '꽃잔디', '생강나무 꽃과 돌담길 풍경', '민들레', '세월의 시간', '모악산이 보이는 삼천천', '풍경 이야기', '울림', '숲속의 한적한 마을', '모악산이 보이는 풍경', '삼천천 흐르는', '모악산 들녘', '겨울 초가집 풍경', '젖빛대가 있는 겨울 풍경', '삼마월', '섬 고향집 문방이', '장남', '한적한 시골길' 등이다.

올 9월까지 이어진 불볕더위는 생태계의 리듬을 깬다. 이영순 작가의 하늘은 쾌청하고 산의 기운을 담은 길은 쾌적했다.

힘차게 흐르는 삼천천은 세상사에 찌든 정신을 맑게 해

주는 듯하다. 잠시 번잡한 세상과 결별했던 소중한 시간이다.

그는 2019년 70대가 넘는 나이에 수채화를 시작했다. 2024년 제56회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입선, 그리고 2024년 제20회 전국을 고을 미술대전에 각각 입선했다.

2022년과 2023년 잇달아 제2회 하늘빛 수채화전과 제3회 하늘빛 수채화전을 청목갤러리에서 열었다. 2023년에는 제5회 하나전을 전라북도청사 내 1층 전시관에서 열기도 했다.

2024년 제56회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 열었다. 그리고 역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을 고을 미술대전에 출품했다. 작가는 '행복은 생각이 적을수록, 나눌수록 더해 집니다'라고 말한다. 이영순 작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전북 명인 동락전

'2024 명인(名人) 동락전(同樂展)'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2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전이 사단법인 풍남문화법인 초대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진흥회는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2024년에 순수하게 본회의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명인 동락전'은 각 분야 예술 문화 명인들의 혼을 담은 작품들이 한 곳에 모였다.

명인들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 전승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화 예술 분야에 평생을 집주해 자기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고 예술을 통한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예술 문화 명인들이 자랑스러운 이유다. 앞으로도 명

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사회 공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이번 첫 발표부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발전하기 바란다. 어떻게 변화할지 뜨거운 성원과 한량없는 찬사를 보낸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명인은 모두 18명이다. 방정순 공예 전통자수, 서울기 화예 현대창의조형디자인, 김상휘 풍수지리, 이완재 전통무용 설

장교, 장효선 전통무예 용담검무, 강성수 전통금속공예 투각, 라복일 화예 현대창자라다 화, 유춘봉 전통자기, 박애선 공예섬유 천연염색, 주영희 복식 전통한복, 김광희 칠보공예, 김인경 뽕잎바지락, 권애란 공예 염직문양, 유미숙 시낭송, 최용근 전통창호, 김병욱 서각공예 그림자, 안혜정 현대화에 찾지리다화, 함지애 주류 전통주 등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나부터 먼저"

황금빛으로 물든 논과,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분주한 농촌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한해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행복한 시기이다. 덜덜거리는 트랙터, 뿔 간에 무엇인가를 잔뜩 실어 가지고 가는 트럭들, 시골 도로 위 유독 차량이 많이 보이는 시기이다.

하지만 가을 수확철 차량 활동이 많아지는 지금이 바로 사고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운전자 대부분이 교령자인 점, 막 걸리 한잔 후 운전은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년도부터 22년까지의 3년간의 농기계

로 인한 사고는 총 3,729건에 229명이 사망, 2,482명의 부상이 발생하였다. 이중 경운기 등 전복·전도가 28%, 교통사고는 20%에 달한다.

일반차량과는 달리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 사고 시에 치사율이 10배가 높다.

또한 현행법상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기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위를 주행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농기계 교통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지금이 농기계 교통사고 예



김정민

무주경찰서

경비안보과 순경

방을 위해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 먼저, 안전 헬멧, 안전화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을 숙지하자. 둘째, 이른 새벽, 저녁에 사용 시에는 농기계에 반사판이나 경고등을 반드시 부착한다.

셋째는 농기계 탑승 시에 1인만 탑승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시에는 반드시 농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예방수칙은 사용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또한 무주경찰서는 농기계 수확철을 맞아 교통사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주군 각 읍·면마다 경운기 등에 반사지 부착과 교령자 대상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 수확철은 1년중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시기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후회되는 날이 되지 않게 사용자 먼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사용 시에 더 주의하고 나쁜만 아니라 타인도 생각하며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